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의 제작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최재영** · 이상균***

The Making of *Kaisei Nihon Yochirotei Zenzu* (「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overeignty of Dokdo*

Jae Yung Choi** · Saangkyun Yi***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리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이하 세키스이)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이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배경을 살펴보고, 이 지도가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키스이가 살았던 시대상과 그의 생애, 세키스이와 지도제작, 그리고 본 연구의 주제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지도제작사적으로 지니는 위상과 그 판본들, 독도영유권 관련하여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갈등과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 지도학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해 지리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독도영유권에 있어 지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독도영유권, 지도학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king of *Kaisei Nihon Yochirotei Zenzu* (「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 which was produced by Nagakubo Sekisui (長久保赤水), a Japanese geographer, and to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is map in the controversy over Dokdo islands. To this end, this study looked in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in which he lived, his life, and his map making, and the status of *Kaisei Nihon Yochirotei Zenzu*,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n the history of cartography, several versions of this map, and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surrounding this map with respect to Dokdo. Furthermore, these conflicts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map in the sovereignty of Dokdo have been critically examined. The geographical approach to this map, which has a high cartographic status in Japan, had gained popularity, and is presente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regarding Dokdo, can represent much to the sovereignty of Dokdo.

Key Words : *Kaisei Nihon Yochirotei Zenzu* (「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 Nagakubo Sekisui (長久保赤水), Sovereignty of Dokdo, Cartography

I. 머리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항목 및 팸플릿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이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자료를 가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일본의 한학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NAHF-2018-기획연구-20).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연수연구원(Post-Doc, Researc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magechoi@chungbuk.ac.kr)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kyigeo@gmail.com)

자(漢學者)이자 지리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이하 세키스이)가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경위선 안에 일본을 표현한 최초의 일본 지도로 알려져 있다(Yoko, 2016). 이 지도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되어 19세기 중반까지 수차례 재간행되었고, 오늘날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큰 지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이 지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다룰 때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지도를 어느 정도 이상 비중 있게 다룬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게다가 이 지도에 대한 지리학계에서의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 중요성에 비하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라는 지도 자체에 주목하면서, 독도영유권에 있어 이 지도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 지도를 다루고 있는 국내 문헌뿐만 아니라 일본 측 자료와 해외의 논저 또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자인 세키스이가 살았던 시대상과 그의 생애, 세키스이와 지도제작,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지도제작사적으로 지니는 위상과 그 판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독도영유권 관련하여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논쟁 양상과 독도영유권에 있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지니는 가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일본의 지도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으로 인해 오늘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이 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도는 한일 양국 정부와 학계의 관심과 논쟁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지도의 제작 배경과 지도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특히 독도영유권적 측면에서도 시의성과 논의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II.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배경

1.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생애와 지도제작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는 에도 시대의 한학자

(漢學者)이자 지리학자이다(최영성, 2016). 현재의 도쿄인 에도(江戸)를 정권 중심지로 하는 에도 시대(1603~1867)는 확립기(1603~1651), 안정기(1651~1716), 동요기(1716~1843)를 거쳐 마침내 ‘대정봉환(大政奉還, 타이세이호칸)’, 즉 막부가 통치권을 조정에 반납함으로써 마무리된다(임우기 · 정호웅, 1997). 따라서 1717년에 태어나 1801년까지 살다간 세키스이는 에도 시대의 동요기를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에도 시대의 동요기의 일본은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인들의 세력이 커져갔고, 상대적으로 무사 계급의 경제력이 약화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몇 번의 개혁이 발생하였다(임우기 · 정호웅, 1997). 그리고 학문으로의 난학(蘭學)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1774년 ‘해제신서(解題新書, 카이타이신쇼)’라는 일본 최초의 번역 의학서가 스기타 겐파쿠(杉田玄白)에 의해 출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책 번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정순분, 2006). 난학은 일본의 자연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으로 막부의 천문방(天文方) 다카하시 요시토키(高橋至時)는 간세이(寬政)력을 만들었고, 그에게 역학 및 측량을 배운 이노우 타다타카(伊能忠敬)는 실측에 기반한 「대일본연해여지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1821년에 제작하기에 이른다(박석순 등, 2005). 하지만 세키스이가 3, 40대였던 18세기 중엽은 난학의 미명기로서 아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고, 기본적으로는 쇄국 정책이 펼쳐졌기 때문에 기독교 관련 서적은 물론 천문 · 측량 · 지리 관련 과학서까지도 금서로서 경계되었던 시기였다(榊原和夫, 1986).

세키스이는 1717년 12월 8일 히타치국(常陸国) 타가군(多賀郡) 시라카와아카하마 마을(白川赤浜村)에서 출생하였다(岡田俊裕, 2011). 타가군은 현재의 이바라키현(茨城県)의 북부에 있던 군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바라키 현이 후쿠시마 현 남쪽에 접해있는 현이며, 특히 타가군은 그 중에서도 후쿠시마 현과 접해있던 군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키스이는 부모와 동생까지 다 잃고 11살에 혼자가 되어버리는 불행을 겪었으나 다행히도 이해심과 애정이 넘치는 계모의 손에 자라게 된다(長久保赤水 顕彰会). 그는 17살 때부터 농업과 학문을 병행하여 한학과 한시를 배웠고, 25살부터는 미토번(水戸藩)의 대표적 한학자인 나고에 난케이(名越南溪, 1699~1777)를 스승으로 모시며 주자학과 한시문과 함께 천문지리를

연구하였다(岡田俊裕, 2011). 번(藩)은 에도 시대 봉건 영주인 다이묘(大名)가 지배한 영토를 칭하는 용어¹⁾로, 미토 번은 세키스이가 나서 자란 히타치국의 한 번이다.

세키스이는 1760년, 그의 나이 44세 때 20일 동안 오슈(奥州) 남부와 에치고(越後)로 여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오기행(東奥紀行, 토오키코)」을 저술하고, 1767년 51세 때는 영주의 명에 따라 베트남 부근에 표류한 미토 번 사람들을 나가사키에서 인수하기 위해 떠난 112일간의 여행에서 청, 네덜란드, 베트남의 풍습, 오사카와 나가사키 등의 경관을 기록하였다(岡田俊裕, 2011). 나가사키 여행을 마친 세키스이는 「나가사키행역일기(長崎行役日記, 나가사키코에키닛기)」 및 「안남국표류기(安南國漂流記, 안남코쿠표류기)」는 물론, 청나라 사람과 시를 교환한 내용을 정리한 「청사창화집(淸槎唱和集, 신사쇼와슈)」까지 펴냄으로 향사(郷士, 고시), 즉 농민이지만 무사의 대우까지 받는 자격까지 얻게 된다(長久保片雲, 1978). 1777년, 61세의 세키스이는 마침내 번주의 시강(侍講, 지코)이 되어 에도로 이주하게 되고, 이후 에도에서 20년간 살게 되었다(岡田俊裕, 2011). 농부 출신인 세키스이가 미토 번 제 6대 번주인 토쿠가와 하루모리(徳川治保)의 학문상 스승인 시강이 된 것은 봉건 사회였던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長久保片雲, 1978). 1791년, 75세가 된 세키스이는 시강에서 퇴임하였으나, 번주의 명에 따라 에도의 번주 저택에 머물며 「대일본사(大日本史)」²⁾의 지리지 편찬에 전념하다 1797년 고향으로 돌아와 1801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岡田俊裕, 2011).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지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지도학의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岡田俊裕(2010; 2011)는 세키스이의 지도 제작에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었는데,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키스이가 일본 지도 제작의 뜻을 품게 된 것은 마흔이 넘어서였다. 앞서 언급했듯 세키스이는 1760년 44세 때 20일간의 오슈(奥州) 남부와 에치고(越後)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지형, 마을, 명승고적 등을 그림과 함께 기록을 하였으며, 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세키스이는 일본지도 제작의 뜻을 품게 된 것이었다. 이후 그는 지인들에게 일본 지도와 지리서 등을 구하여 기본도를 만들고, 방문자나 여행자들에게 자신의 고향과 여행한 곳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였다. 일본지도 제작의 꿈을 품은 지 8년 만인 1768년 세키스이는

시부카와 하루미(渋川春海, 1639-1715)가 측정한 위도를 지도에 기입하였다. 그리고 1779년 그의 나이 63세에 마침내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1785년 세키스이는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1602)」등을 참고하여 세계지도인 「지구만국산해여지전도(地球萬國山海輿地全圖)」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역사적 사항을 담은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라는 중국 전도를 제작하였다. 「대청광여도」에는 한문으로 번역된 천문학 서적인 「천경역문(天經或問)」에 기초하여 위도와 경도가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한 장의 지도에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세키스이는 12장의 시대별 중국 지도와 1장의 동아시아 현세도(現勢圖)를 제작하였다. 세키스이의 지도 제작에 대한 열정은 계속 되어 74세인 1790년에 일본 최초의 역사지도첩인 「당토역대주군연혁도(唐土歷代州郡沿革圖)」를 간행하였다. 세키스이는 이 역사지도첩을 만들며 특히 채색에 신경을 쓰는데, 이는 1774~75년 오사카에 있을 당시 세키스이가 나카무라 테키사이(中村揚齊)의 「중하고금주군도보(中夏古今州郡圖譜)」라는 채색지도에서 받은 충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岡田俊裕, 2010; 2011).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이시카와 토보노부(石川流宣) 계통의 채색 지도는 장식성을 넘어 여행자를 위한 정보 및 정치적 특징까지 보여주는 실용성 덕분에 17세기 후반부터 근 한 세기에 걸쳐 독점적인 인기를 일본에서 누렸다(Yoko, 2016). 하지만 이시카와 계열 지도의 인기는 1779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의해 종식되고 만다(Kazutaka, 1994).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가로 135cm, 세로 84cm의 크기에 10리를 1촌으로 하는 축척(岡田俊裕, 2011), 즉 40km를 3.3cm로 하는 129만 6천분의 1의 축척으로 제작되었다(榊原和夫, 1986). 세키스이가 제작하였다고 하여 ‘세키스이도(赤水圖, 세키스이즈)’로 불리기도 하는데, 경위선 안에 일본을 표현한 최초의 일본 지도로 알려져 일본 지도학사의 한 획을 긋는 지도라 할 수 있다(Yoko, 2016).³⁾ 세키스이가 거의 혼자 힘으로 만들어내다시피 한 지도지만 아직 난학(蘭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18세기 중엽의 상황을 감안하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는 당시 다른 지도들에 비해 혁명적인 수준이며 당시 간행된 지도 중에 가장 정확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榊原和夫, 1986). 기존의 이시카와 토보노부의 지도가 장식성이 강하고 모양이 왜곡된 측면이 있었기에 세키스이의 지도의 정확성은 획기적으로 여겨졌다(岡田俊裕, 2011). 40여년 뒤에 나온 이노 타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

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는 더욱 높은 정확성을 자랑했지만 에도 막부에 헌납되어 일반인에게 공개가 금지된 탓에 민간 간행도인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가 인텔리 층과 여행자에 의해 애용되었으며(榊原和夫, 1986), 그 인기는 메이지 초기까지 이어졌다(岡田俊裕, 2011). 일본의 고지도 관련 책을 보면 「개정일본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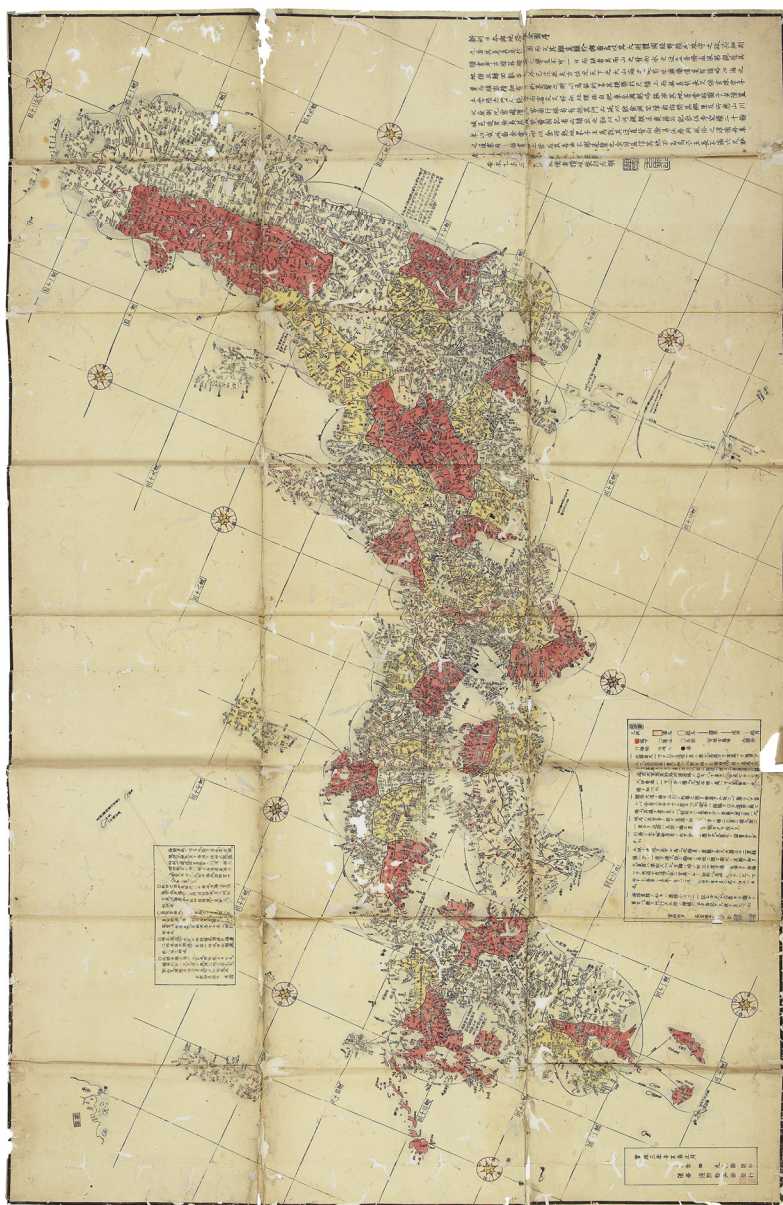


그림 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출처 : 長久保赤水, 1791.

•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표 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재발행 시점에 대한 견해 및 각 판본의 특성

	Kazutaka(1994)	岡田俊裕(2011)	久保井規夫(2016)
1775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 원판
1778			1775년 판의 개정판
1779	초판	초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관허 1판
1791	○	○	관허 2판
1811	○	○	관허 3판
1833	○	○	관허 4판
1840	○	○	관허 5판(최종판)
1844	○		복제판
1846		○	복제판이며 1846년 판인지도 불분명
1852			「증정 대일본국군여지도정전도(增訂 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스즈키 키엔(鈴木驥園) 증정(增訂)
1862			복제판
1865			복제판
1871		○	1852년 판의 재각(再刻)

* ○ 표시는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각 연도에 수정 및 재발행이 있었다고 서술되었음을 의미함.

노정전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榊原和夫, 1986), 일본 지도학사에서 지나는 위상과 그 대중적 인기를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에 대해서 Kazutaka(1994)는 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1844년에 수정 및 재발행되었다고 하고, 岡田俊裕(2011)는 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1846년, 1871년에 재발행되었다고 한다(표 1). 久保井規夫(2016)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총 15개의 판본이 있으며 이를 원판과 관허판, 복제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1775년 3월에 나온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新刻日本輿地路程全圖)」가 원판이고 1778년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이것의 관허판이자 대대적으로 시판된 것이 1779년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인 것이다.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는 1779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기록된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의 추천사의 연월이 1775년 3월이며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로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775년 원판의 존재를 추측한다. 그는 실제로 1775년 원판과 1778년 개정판을 입수하는데, 관허를 얻기 전 소량만 제작되다보니 1775년 원판의 경우 “환상의 문서”(久保井規夫, 2016:13)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림 1은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소장 중인 1791년의 관허

2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II.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와 독도영유권

1.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일본정부 입장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영토와 관련된 항목(日本外務省)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日本の領土をめぐる情勢)” 항목에는 일본과 관련된 3가지의 영토 분쟁이 나온다. 바로 북방영토, 센카쿠(尖閣), 그리고 일본에서 타케시마(竹島)로 부르는 독도이다. 여기서 竹島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 이 중 “타케시마 문제의 개요(竹島問題の概要)”의 하위 항목인 “타케시마의 인지(竹島の認知)”에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등장한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어떤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타케시마의 인지’ 부분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타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

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타케시마' 또는 '이소 타케시마'로 불렸습니다(그림 1). 타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타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타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日本 外務省)

이 글 아래에는 두 장의 지도가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이고, 하나는 1724년경에 제작된 「죽도지도(竹嶋之圖)」이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울릉도와 독도 부분은 따로 확대하여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에서처럼 울릉도에는 竹島, 독도에는 松島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요컨대, 일시적인 명칭의 혼란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타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증거는 경위선을 표현하여 제작된 나가쿠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등 다수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오래 전부터 독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제작한 정확한 지도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명에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초판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설명 아래에는 메이지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846년 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久保井規夫(2016)는 일단 1846년에는 관허 정규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846년 판 자체가 복제판임을 지적한다. 그는 제시된 지도에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이 1775년에 쓴 추천사가 있기 때문에 세키스이의 지도인 것은 맞지만, 1846년 판은 1775년 원판 판목에 추가 판각을 한 복제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는 이 지도에 발간연월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1846년 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동향과 판본 논란

일본 정부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개정일본여

지도정전도」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 측에서는 냉정하게 이 지도의 가치와 의미를 분석해보고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지도를 활용할 것인지, 일본 측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검토해보았으며,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어느 정도 이상의 비중을 둔 초기 연구는 최서면(2005)의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1779년 판을 제시하며,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과 마찬가지로 채색이 없기에 일본 영토가 아닌 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최초로 나오기에, 이 시대에 이미 이 두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일본이 주장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독도가 등장하는 최초의 일본지도가 적어도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유미림(2016)에 따르면 돗토리번의 에도 유수거(留守居) 고타니 이헤(小谷伊兵衛)는 오야무라카와 집안이 소장한 회도를 필사하여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란 표제를 붙여 에도막부에 제출하였는데, 유미림은 그 시기를 1695년에서 1696년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어 1724년 돗토리번은 「죽도지회도지사(竹嶋之繪圖之寫)」라는 표제의 회도를 막부에 제출하는데, 이름에 드러나듯 이 회도는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를 다시 필사한 것이다(유미림, 2016).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논란의 초점이 좁혀진다. 하나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 논란과 또 다른 하나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상의 울릉도 옆 주기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 논란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타케시마의 인지(竹島の認知)” 항목과 2008년 2월 처음으로 제작된 “타케시마 문제 10가지 포인트(竹島問題10のポイント)” 팸플릿에 기재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가 1779년 초판(관허 1판)이 아닌 1846년 판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두 판본의 가장 큰 차이는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채색이 되지 않았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도선 내에 있지 않은 반면, 1846년 판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채색이 되어 있고 두 섬이 경위도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호동(2010)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채색이 된 1846년 판을 제시한 것은 국제 사회의 눈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

표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관한 국내 연구현황

연도	연구자	요지
2005	최서면	제목: 한·일간의 역사문제: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 한일 역사문제를 독도를 사례로 다루는 연구 - 일본 사서(史書) 연구 -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은주시청합기」,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제시 - 경위도선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채색 여부에 관해서 다루고 있음. 초판을 사례로, 채색이 없으므로 일본영토라고 볼 수 없다는 것.
2010	김호동	제목: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 -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1, 2 비판- • 일본의 독도 인식 주장에 대한 비판 - 1779년 초판이 아닌, 독도가 경위도선 내에 있고 채색이 되어 있는 1846년 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 - 울릉도 옆의 주기를 「은주시청합기」와 함께 설명
2012	하도겸	제목: 한일간 역사전쟁: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양국간 정부입장(Ⅰ·Ⅱ)에 대한 검토 •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정부입장 검토 -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근거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제시하는 것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분석 - 체계적인 지도학적 분석은 없지만, 채색 여부, 경위도선 적용 여부 등 한일 양국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 - 「은주시청합기」와 관련하여 울릉도 옆 주기 내용 비판적 검토
2013	이상태	제목: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 일본의 고지도를 다루면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언급 - 채색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는 것은 세키스이가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 - 울릉도 옆에 적힌 주기 내용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 밖의 땅으로 인정하였다고 봄.
2014	남영우	제목: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 독도관련 지도 개관 - 울릉도 옆 주기의 기점이 독도라면 올바르지만, 울릉도라면 오류임을 지적.
2016	최영성	제목: 일본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중심으로 • 「은주시청합기」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관련지어 분석 - 채색, 경위도, 울릉도 옆 주기에 대한 분석

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다.

하지만 하도겸(2012)은 일본이 1846년 판을 게재하는 것에 의도성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근거중심적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즉 1779년 판에는 독도가 경위도선 밖에 있으며 채색도 되어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1775년의 「신각일본여지도정전도」의 경우 독도가 경위도선 내에 채색이 되어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논리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측이 ‘그저’ 울릉도와 독도를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나가쿠보 세키스이가 제작한 「아세아소동양

도(亞細亞小東洋圖, 1857)」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도 하나로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영성(2016)은 1775년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채색이 되어 있지도 않고 경위도선 밖에 있다고 주장한다. 두 섬에 채색이 된 지도는 이 지도의 모사본이며, 이를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증거로 일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久保井規夫(2016)의 설명은 또 다르다. 1775년 지도의 울릉도와 독도는 부적절하게 채색이 되고 경위도 선 안에 배치된 것은 사실이나, 1779년의 개정판에 세키스이가 울릉도와 독도를 도

해 금지의 땅으로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1779년 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선 밖에 있고 무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전술하였지만 久保井規夫(2016)는 1846년 판이 복제판이며, 발행연월이 표기된 지도의 왼쪽 아래 부분에 지도의 발행일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지도는 1846년 판인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한다. 소장처인 메이지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 지도를 확인해보면, 왼쪽 아래 부분이 가려졌다기 보다는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아무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는 발행처와 간행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 지도가 1775년 원판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영유권적 가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판본 논란은 결국 독도의 채색 여부와 경위선 내 배치 여부의 문제이다. 1779년판과 달리 1846년 판에는 독도에 채색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채색이 되어 있는 것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울릉도 역시 독도와 같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울릉도의 영유권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1846년 판에는 부산 역시 색이 칠해져 있다. 따라서 채색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채색이 되지 않았던 지도도 있고, 모두 채색이 된 지도도 있는데,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 지도별로 따져봐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다만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인 울릉도와 같은 그룹으로 표현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위선 내 배치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1846년 판에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그리고 부산까지도 전부 경위선 내에 배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경위선이 무조건적인 영유의 의미까지 내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세키스이의 지도에서 경도는 위도와 달리 단지 눈금의 표시에 불과하여 동서간의 거리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시도된 것일 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영유권적 가치는 어떠한 점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림 2는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이즈 제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잘 보면 해안을 따라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에 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들은 연안의 주요 지점뿐만 아니라 이즈제도의 섬들에도 이어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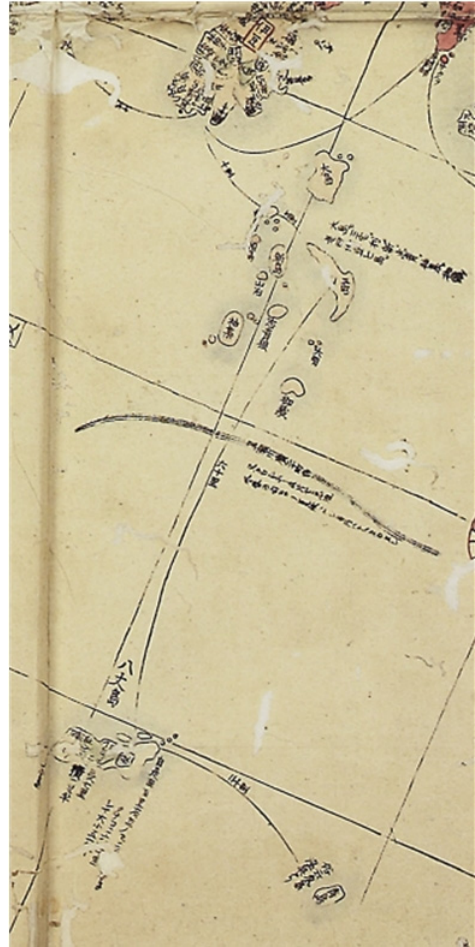


그림 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이즈 제도 부분 출처 : 長久保赤水, 1791.

*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다. 심지어 붉은 색으로 채색된 치바현(千葉県)에서 270km 정도 떨어진 아오가시마(靑ヶ島)까지도 거리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를 그림 3과 비교해보자. 그림 3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서 울릉도-독도 및 오키 제도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붉은 색으로 채색된 시마네현(島根県)에서 오키 제도까지는 선이 그어져 있고 거리가 표기된 것이 보인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 쪽으로는 아무 선이 보이지 않는다. 독도에서 시마네 현까지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보다 본토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아오가시마에는 선이 그어져 있고 거리도 나오지만 독도로는 아무런 선도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1791년 판뿐 아니라 18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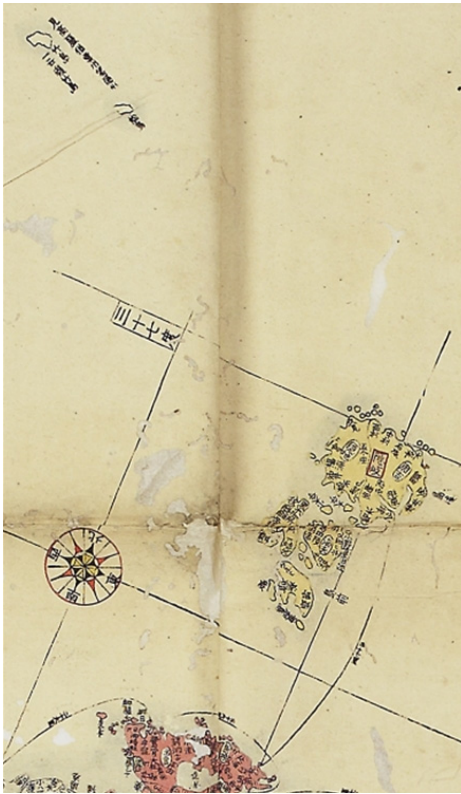


그림 3.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울릉도·독도와 오키 제도 부분

출처 : 長久保赤水, 1791.

*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1779년 초판에는 이러한 해상거리선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다.⁴⁾ 따라서 일본 연안을 중심으로 표현된 해상 거리선 및 거리 수치는 이 지도가 재발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며, 이 같은 거리선의 유무가 당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국내 연구에서의 논란의 두 가지 초점 중 하나인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상의 울릉도 옆 주기의 해석 문제에서 더욱 확실한 영유권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이듯 “見高麗猶雲州望隱州(견고려유운주망은주)”라는 문구가 정확히는 竹島로 표기된 울릉도 오른쪽에 적혀 있다. 猶(유)는 ‘오히려’, 혹은 ‘원숭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같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구는 “고려를 보는 것은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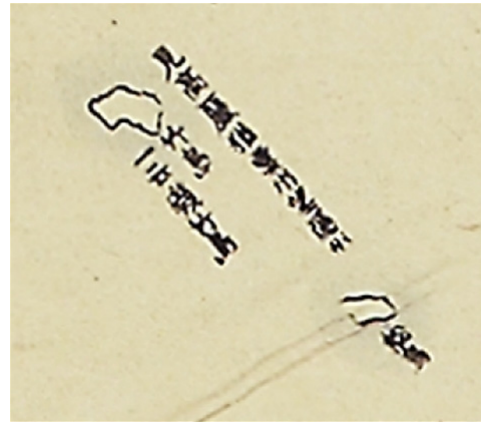


그림 4.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91년 판 울릉도·독도 부분
출처 : 長久保赤水, 1791.

*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주에서 은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구는 隱州(은주), 일본어에서는 ‘온슈’라고 읽는 현재의 시마네 현 오키 제도(隱岐諸島)를 1667년 운슈(雲州) 마쓰에(松江) 지역 번사(藩士)였던 사이토 호센(齋藤豊仙)이 민정 시찰하고 기록한 지지인 「은주시청합기(隱州福惠合記)」에 나오는 “見高麗如雲州望隱州(견고려여운주망은주)”라는 문구에서 如(여)를 猶(유)로 바꾸기만 하여 쓴 것이다(최영성, 2016).

「은주시청합기」에는 일본의 북서쪽 경계를 “此州(차주, 이 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울릉도로 볼 것인지, 온슈(오키 제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최영성(2016)은 “見高麗猶雲州望隱州”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즉 여기에서의 高麗(고려)는 오키 사람들에게 고령 땅의 상징인 울릉도이며, 약 70km 떨어져있는 온슈(隱州)와 온슈(雲州)가 일본 영토이듯 약 90km 떨어져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久保井規夫(2016)는 에도시대의 州(슈)가 나라를 뜻하기에 此州(차주)를 울릉도나 독도로 볼 수 없으며, 온슈(오키 제도)나 다이슈(対州, 쓰시마)처럼 나라를 이루는 큰 섬에 州(슈)가 붙는다고 설명한다. 최영성(2016)은 온슈-온슈 사이의 거리와 울릉도-독도 사이의 거리가 “조망이 가능한 가시적 거리”(최영성, 2016:190)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토 호센이 울릉도와 독도를 본도(本島)와 속도(屬島)의 관계로 본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가시적 거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공간적 교류를 가능

케 하기에 독도가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자도(子島)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남영우, 2014).

V. 맺음말

우리에게 있어 독도는 특별하고 중요한 곳이다. 광복 직후에 혼란한 상황에서도 교과서에 우리의 영토로서 독도 관련 내용이 다루어질 정도이다(서태열, 2012). 독도가 중요한 만큼 독도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중요하며, 특히 일본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우리 측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연구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 배경은 다소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농부 출신이면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번주의 시강에까지 임명된 입지전적인 학자였고, 그가 지도 제작의 꿈을 품은 것도 마흔이 넘어서였기 때문이다. 아직 난학의 미명 기임에도 세키스이는 20년이란 세월을 바쳐 당시로서는 놀랄만한 정확성을 지닌 지도를 홀로 완성시킨다. 그 노력만큼이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는 인기를 누려 여러 번 재발간되었고 메이지 초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애용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에서 지도학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상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779년 초판이 아닌 1846년 판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확한 발간 연도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본 문제는 결국 독도에 대한 채색 여부 및 경위선 내 배치 여부와 직결되는데, 채색 여부와 경위선 내 배치여부가 무조건적인 영유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가치를 해상에 표현된 거리선에 주목하여 논증해보았다. 거리선은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의 수많은 지점과 지점을 잇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섬까지도 잇고 있는 반면, 울릉도와 독도로는 어떠한 선도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울릉도 부근에 표기된 주기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기록된 “見高麗如雲州望隱州(견고려여운주망은주)”는 온슈와 운슈가 일본의 영토이듯,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註

- 1)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검색어: 변[藩])”.
- 2) 「大日本史」는 1657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1906년에 완성된 것이었는데, 세키스이가 집필한 지리지는 너무 상세한 탓인지 「大日本史」에 실리지 않았다(岡田俊裕, 2011).
- 3) 경위선이 최초로 표현된 일본의 지도는 1754년에 제작된 森幸安(모리 코안)의 「일본분야도(日本分野圖; 천문도)」(도쿄국립문서보관소 소장)이며(Kazutaka, 1994, 415), 일본에서 컬러지도가 등장한 것은 1694년에 제작된 石川流宣(이시카와 토보노부 또는 이시카와 류센)의 「일본해산조륙도(日本海山潮陸圖)」(캘리포니아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Yonemoto, 2016:37). 따라서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에 표현된 경위선이나 채색은 세키스이가 최초로 시도했다기 보다는 그 이전에 시도된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초판은 네덜란드의 레이던대학(Leiden University)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Kazutaka(1994:414)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British Columbia University)의 허가를 받아 Yoko(2016:41)에 각각 수록이 되어 있다.

참고문헌

-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2016,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 변화와 영유권 분석,” 독도 관련 일본 발행지도 학술회의 자료(12월 6일), 12-21.
- 김호동, 2010,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 -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1, 2 비판-,” 민족문화논총, 44, 3-33.
- 남영우, 2014,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도제작과 측량,” 영토해양연구, 7, 26-51.
- 동북아역사재단, 2012,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

- 실],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박석순·서민교·손승철·신동규, 2005, 「일본사」, 서울: 대한교과서.
- 서태열, 2012,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 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 교육,” 한국지리학회지, 1(1), 1-9.
- 유미림, 2016, “‘이소타케시마’어원에 관한 일고 (一考),” 영토해양연구, 12, 44-73.
- 이상태, 2013,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 15, 57-96.
- 임우기·정호웅, 1997, 『『토지』사전』, 서울: 솔.
- 정순분, 2006, 「일본고전문학비평」, 서울: 제이앤씨.
- 최서면, 2005, “한일간의 역사문제: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일본학, 24, 1-25.
- 최영성, 2016, “일본의 고문헌을 통해 본 독도: 「은주시정합기」와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84, 169-196.
- 하도겸, 2012, “한일간 역사전쟁: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양국간 정부입장(II)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사학보, 25, 145-180.
- 岡田俊裕, 2010, “近代日本の地理学者に関する伝記・著作物研究,” 高知大学教育学部研究報告, 70, 129-168.
- 岡田俊裕,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近世編)」, 東京: 原書房.
- 榊原和夫, 1986, 「地図の道—永久保石水の日本図」, 東京: 誠文堂新光社.
- 長久保片雲, 1978, 「地政学者長久保赤水伝」, 東京: 暁印書館.
- 長久保赤水, 1791, 「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소장).
- Kazutaka, U., 1994, Cartography in Japan, in Harley, J.B. and Woodward, D., eds., *The History of Cartography: Cartography in the Traditional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6-477.
- Yoko, M., 2016, A New map of Japan and its acceptance in Europe, in Wigen, K., Fumiko, S., and Karacas, C., eds., *Cartographic Japan: A History in Map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43.
- Yonemoto, M. 2016, The European Career of Ishikawa Ryusen's Map of Japan, in Wigen, K., Fumiko, S. and Karacas, C. eds., *Cartographic Japan: A History in Map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7-40.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2018년 10월 30일 최종 접속)
- 日本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2018년 10월 30일 최종 접속)
- 長久保赤水 顕彰会, <http://nagakubosekisui.org>(2018년 10월 30일 최종 접속)
- 교신 : 이상균,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5층, 동북아역사재단(이메일: skyigeo@gmail.com)
- Correspondence : Saangkyun Yi, 03739, 5F, Nonghyup Life Insurance Bldg., 81 Tongil-ro, Seodaemun-gu, Seoul, Kore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Email: skyigeo@gmail.com)
- 투 고 일: 2018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0일
투고확정일: 2018년 12월 5일

